

<Brussels Immersion Field Trip 탐방 보고서>

Europe - South Korea

Educ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성은정, 배수현

목차

1. 여는 글

2. EACEA(The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1) EACEA 소개

2) Project Officer 인터뷰

3. JA-YE Europe(Junior Achievement Young Enterprise)

1) JA-YE Europe 소개

2) Project Manager 인터뷰

4. 닫는 글: 브뤼셀 탐방을 마무리하며

1. 여는 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인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 방법과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수십 명의 단순 노동력보다 능력을 가진 한 명의 인재가 더 가치 있게 평가되는 현대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륙 끝의 반도에 위치하여 다소 폐쇄적인 국가 정책을 고수해왔던 우리나라에서도 교통과 통신 등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교류의 포문을 열게 되었다. 그 영향을 받아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등의 여러 교류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며 교육 영역에서의 공간적 확대가 일어났다.

이번 ‘Brussels Immersion Fieldtrip’ 관련 안내 공고를 보고, 유럽의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교육적 교류에 대해 조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는 유럽보다는 미국과 비교적 비슷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쟁 후 기존의 유교 교육이 아닌 현대적인 교육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그에 따른 성과우선주의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일어났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해법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교육이다. 다큐멘터리나 관련 책에서 이러한 유럽의 교육에 대해 간접적으로 접한 적은 있었지만, 직접 그 국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또 그러한 교육 방법들이 우리나라와는 어떠한 방향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브뤼셀 투어 참가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우선 많은 EU 기구들이 모여 있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을 방문하는 만큼 EU 산하의 교육 관련 기구를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 EU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았다. EACEA(Education, Audiovisual & Cultural Executive Agency)는 유럽연합의 집행기관 중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Education and Culture(DG EAC)의 지휘 아래에 있는 책임 집행기관으로, 유럽 전반의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EU와 같은 단순 행정부서가 아닌 실제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는 것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유럽최대의 청소년 경제·직업교육 민간기구(NGO)인 JA-WE Europe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일정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E-mail을 통하여 조율하였으며, 브뤼셀을 방문하는 단체 일정 뒤에 주어진 이틀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의 질문들을 예상하여 작성해 보았다.

2. EACEA(The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1) EACEA 및 관련 프로그램 소개

EACEA는 European Commission이 창립한 교육 전담 기구이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교육과 관련한 여러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교육, 직업 훈련, 문화, 시민 활동의 분야에서 유럽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EACEA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ACEA의 임무는 European Commission이 발안한 정책을 실제적인 활동과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7개의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7개의 프로그램과 별도로 Bilateral Cooperation Team이 존재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Erasmus Mundus Programme

Erasmus Mundus는 유럽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과 문화적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적 자원의 개발과 제 3국의 고등교육전담 기구와의 협력을 목표로 EU와 다른 국가 사이의 교육적인 이동성을 증진시킨다. Erasmus mundus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기구, 학생들, 학회, 강연자, 연구자, 공기업, 사기업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2) Lifelong Learning Programme

평생 교육 프로그램(Lifelong Learning Programme)은 연령층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과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 프로젝트와 활동에 보조금이 주어진다. LLP는 4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다. 4개의 하위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Sub-programmes			
Comenius School education	Erasmus Higher Education	Leonardo da Vinci	Grundtvig Adult Education
학생, 교사, 학교를 위한 프로그램	대학생, 교수, 학자, 대학을 위한 고등 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형태의 직업 교육 및 직업 훈련을 담당	성인, 교사 및 관련기관을 위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
Transversal Programme 4 key activities—Policy cooperation and innovation; Languages; ICT; Dissemination & exploitation of results			
Jean Monnet Programme Support to institutions and actions in favour of European integration			

표 1.

(3) Media

Media는 유럽의 시청각 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과 유산을 반영하는 European audiovisual 분야의 성장을 도모한다.

(4) Culture

Culture 프로그램은 유럽 국가들의 문화적 협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문화 관련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음악, 예술, 문학, 번역, 문화 유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5) Youth in Action

Youth in Action은 13살에서 30살 사이의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및 청년 층이 유럽 사회의 주요한 인물이 될 것을 감안하여 유럽 국가 내에서 그들의 교육적 이동성을 촉진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과 청년에게 비형식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Youth in Action은 5가지 주요 활동인 Youth exchanges & democracy projects, European Voluntary Service, Youth projects with partner countries, Youth support programs, 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6) Europe for Citizens

Europe for Citizens는 프로그램 명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유럽 통합 과정에서 유럽의 시민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다른 유럽 국가의 국민들과 상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즉, European citizenship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7) Eurydice

Eurydice는 유럽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과 교육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럽 국가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수한 연구와 관련 보고서가 Eurydice 웹사이트 상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며 초국가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폭 넓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8) Bilateral Cooperation with Industrialised Countries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이 프로그램은 EU와 다른 선진국 사이의 학문적 교류와 교육적 이동성(educational

mobility)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 및 훈련에 대해 각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한다. 또한, 각국간의 상호 협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cooperation agreement로는 EU-US Atlantis, EU-Canada cooperation programme,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me under the framework of the industrial countries instrument (ICI ECP)가 있다(이번 탐방을 통해 인터뷰로 알아본 프로그램은 ICI ECP이다).

2) Project Officer 인터뷰 (2012.06.28. PM 3:00)

(1) Interviewee 소개

▶ Antonio FONTELLES DE LIMA

Project Officer; Tempus and Bilateral Cooperation with Industrialised Countries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E-mail: antonio.fontelles@ec.europa.eu

(2) 찾아가는 길



(3) 인터뷰 질문 및 답변

Q. Could you explain the current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between South Korea and EU?



The project that promotes understanding between the peopl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New Zealand involves the importance of academic cooperation. It has started in 2007. Basically there have been three major projects such as KOREU GL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uropean Korean Leadership Alliance, and An Innovative Korean-European Multidisciplinary exchange programme for master level.

Q. Are the projects you mentioned before different from Erasmus Mundus?



You know Erasmus Mundus. Yes, it's different from the projects I said. The Erasmus Mundus programme is mainly for European higher education, whereas the project called ICI ECP (Industrialised Countries Instrument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me) is not confined to higher education. There are two sectors for ICI ECP. One is for higher education which can let students get two diplomas from two universities including the universit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versity in Europe. The other is for vocational training.

Q. Then, what do you think of the outcomes or advantages of programs?



The outcomes, well, I've got to say it's flows of students. They can get diplomas and they can also get a scholarship which will let them afford to study in European countries. As of this year, the precise outcomes will be shown, since it is the first year that we've started the exchange program for the university students. What is sure is that students can get two diplomas from both universities.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 will be given an educational document issued by EU.

Q. What is required for this program to be successful?



The most important requisite is cooperation among European universities and Korean universities. We see by experience, I mean if we count on the previous experiences, it becomes obvious that cooperation and trust are the crucial components, but it's really difficult to work with department that you've never worked with before. Therefore people have to get to know each other. It's the main

point. The other thing that I'd like to mention is trying to keep it simple. There are always many issues surrounding the programs. Sometimes people are ambitious or they oppose to this, especially it's difficult to embrace the offenders' insults. However if you choose one specific subject, it should be the one that you should concentrate on.



↑ 사진 1. Antonio Fontelles, the Project Officer of EACEA



↑ 사진 2. EACEA 앞에서

3. JA-YE Europe(Junior Achievement-Young Enterprise Europe)

1) JA-YE Europe 소개

JA-YE Europe은 유럽최대의 청소년 경제·직업교육 민간기구(NGO)이다. 인터뷰 중에 단체를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Project Manager 인터뷰 (2012.06.29. AM 11:00)

(1) Interviewee 소개



▶ Livia Di Nardo

Project Manager of JA-YE Europe

Tel: +32-2-7359720

E-mail: livia@ja-ye.org



▶ Preslav Mitranov

Project Manager of JA-YE Europe

Tel: +32-2-7359720

E-mail: preslav@ja-ye.org

(2) 찾아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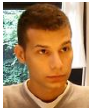
(3) 인터뷰 질문 및 답변

Q. Could you tell me about your NGO, JA-YE please?



The office, the original office which means that this is the headquarter of the European office, and in Europe we have a network of 36 countries. JA-Ye is a worldwide organization, so you know that we have a lot of offices in Korea, and it started almost a hundred years ago in U.S.A. We will give you some more information. What we are do is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vider, not only because what we also do is, um, well we also work on skills for employee ability, so it's entrepreneurship in a broad way. We work with students from primary education to secondary education, but the main focus we have is on secondary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Q. Do you mean secondary schools as high schools? Don't you work with universities?



Yes, high schools. We work in universities as well. We have programs in universities as well, but our main focus is secondary school, which means high schools. Because what we do in universities, I mean what we do in the schools is mainly do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but we are not like a business school, so we do not have keep setting up students a business for us. It's education. We help the students set up their own business, but this is an educational program. It does not seem to as a starter program. Although we have programs in universities as well, and there it's more like a starter program, but that's the main difference that we have with business schools. So this is mainly the big pi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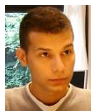
Q. How many students participate in your programs?



We have each year more or less 3 million students working with us. With vocational education, we have two special programs which are only for vocational education. Of course vocational education is included in all our programs. We have two projects we run for vocational education. Our organization has two different types of activities. One, we call it, cohort(core?) program. This is the program we run every year in almost all the countries. Let's say this is our curricula. Then we have projects, the specific projects, specific subjects with specific companies like Hyundai project that we are going to do. These are customized on the specific activities. The main core programs we have, I'm telling

you this because it's also linked with Hyndai Project. For secondary schools it's this company programs (showing the brochure) which is the program that lasts in one school year in which students learn how to set up, run, and close the mini company business. Basically they run their own company and they go through the whole process. This program is very big in Europe. This is our methodology and we also use this methodology in other programs like the one with Hyndai.

Q.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the program with Hyndai?



Well, the program with Hyndai has not started yet. I mean it has started because we have signed the contract and we are in the process setting up the partnership deciding which countries. We know that one of the activities that Hyundai is going to do is mini companies. Hyundai asked us the program in several countries. They wanted to, mainly what they feel like is that there are not enough students who are willing to work in the motor sector(?), but generally in scientific sector, so they want to boost math, science, and technology skills. They called us to create the programs especially for them. The way we work, sorry I forgot to mention something, the way we work, um. Our symbol is a triangle. We create the curricula, programs and etc. Then of course there are the teachers, and students. The other corner in the triangle, this is business. Business means that they do not finance of course, but we work with business people. So let's say for example Hyundai in this case, we send them in the schools to work with the kids, and to mentor the kids to teach them, and to help the teachers out of all years. These are the three components of our core business. So what we are developing with Hyundai, it will be a program that explores the skills for future. It is a program that, well, we'll have several activities. The main aim is to send Hyundai volunteers in to schools to work with the kids, and have mini companies or have the lesson on case study on skills for their future. We will also have a competition which will be called hyundai award among all these mini companies that will be mentored by Hyundai.

Q. What are the mini companies?



The mini companies are what I was telling you here, so the company programs, basically what happens is that students set up a company and then they run it for a year. You did the mini company?



Yes, it's one classroom, maybe 30 people. They will get 10 euros at first for beginning the company. They use this money to produce something. Usually something small, but sometimes something bigger. Sell the products, do the report, and they go to trade fair in the different countries. It's a competition. Even though it's a mini company, there are rules applied to the project like mini companies as they do in a huge company. This is what we do in vocational schools, but in other schools as well.



↑ 사진 3. Preslav Mitranov(좌), Livia Di Nardo(우)

4. 닫는 글: 브뤼셀 탐방을 마무리하며

국가 간의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한-EU FTA의 체결은 양자 간의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더욱 급속도로 무너뜨리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FTA와 같은 국가 간 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화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비가시적인 서비스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범위는 더욱 다양해지고 품질 또한 향상되므로 우리는 더욱 넓은 범위의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간 교류의 활성화는 교육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또다시 국경을 초월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각 분야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창출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는 다시 국경을 넘나들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교류는 다른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선진 교육제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다. JA-YE Europe이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 및 훈련이 바로 그 예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매우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마지막 선택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게고의 변질과 몰락을 가져왔으며, 전문대 역시 자발적 선택보다는 상위 4년제 대학교로의 편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낮은 성적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는 직업교육 분야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다. JA-YE의 산학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직업훈련 지원 활동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브뤼셀 탐방은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간접적으로만 경험해 보았던 유럽의 교육 정책과 우리나라와의 교류에 대해 직접 관계자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한국과 EU는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호혜적인 교육 서비스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 내에서 EU 국가들과의 교육 분야의 교류에 대한 인식은 영어권 국가나 중국, 일본 등의 주변 국가와의 교류에 비해 낮은 편이며, 생소한 문화나 언어적 장벽, 교육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 선호도도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도 유럽의 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점 이수 신청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서 많은 난항을 겪곤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양자가 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적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EACEA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뢰와 타국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교육 시스템, 행정 및 정책, 국가의 거시적인 교육관, 교육과정 상의 상당한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